전국 1,220개 회원조합 평가 1위 장흥 정남진농협

합병설움 경제사업으로 이겨냈다

전직원 '똘똘' 농자재 판매 등 25% 신장

파프리카·표고 등 日·동남아 수출 호조

부실경영으로 인근 조합에 강제 합병됐던 지역농협이 1년 만에 전국 최고의 조합으로 우뚝 섰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1천220개 회원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업적평가에서 장흥 정남진농협은 전남 1위는 물론 전국에서 최고 점수인 1천224점을 획득,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남진농협은 지난 2005년 12월 유치농협과 장흥농협이 합병돼 탄생됐다. 당시 부실의 주요원인인 상호금융 연체대출금이 123억원으로 연체비율이 25%에 달했다. 그러나 합병 1년 만에 무려 78억원의 부실채권을 줄여 연체 비율을 10%대로 낮췄다. 또 우선출자 5억원을 포함 출자금 규모를 13억원으로 늘려 -0.3%에 불과하던 지난 2005년말 총 자본비율을 지난해에는 7.2%로 높였으며 자산 총액 역시 1천300억원에서 1천520억원으로 키웠다.

이밖에 카드사업이용 전국 1위와 새출발 사은예금 추진 전남 1위를 차지하는 등 불과 1년 만에 100억원의 예금실적과 총 72억3천800만원의 공제료 추진 실적으로 7억1천2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또한 361농가에 5억300만원의 사고 공제금을 지급해 농가부담을 덜어 줬다.

정남진농협의 도약은 경제사업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

농촌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3억3천500만원의 농약 판매고에 49억4천200만원 어치의 농용자재를 공급하는 등 전년 대비 25%의 실적 증가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189만달러 상당의 파프리카와 표고버섯을 일본과 동남아지역에 수출해 농림부으로 부터 '2006 수출우수조합'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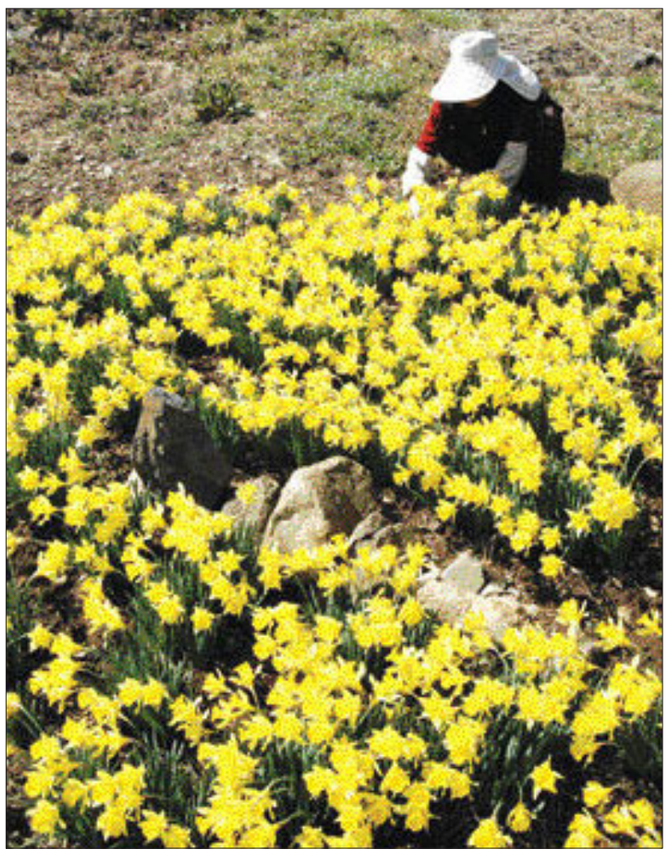
정남진농협은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계속해 왔다. 채권관리팀과 경제사업팀을 강화, 모든 사업장 사무실은 설과 추석 명절만 휴무하고 연중개방하고 영농철에는 전 직원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조합원위주의 영농지원활동을 펴왔다.

이같은 실적에 따라 정남진 농협은 작년 연말 13억4천500만원의 당기순 이익금을 올려 97년 이후 10년만에 3천780여 조합원에게 5억4천8백만원을 배당했다.

정남진농협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종합복지센터 건설 ▲총 자산 3천억원 ▲상호금융 예수금 2천억원 ▲순자본비율 10% ▲클린농협 달성 등 '정남진 장흥농협 2011 비전'을 수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천 조합장은 "전국 최고 복지농협과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농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관상용 인기 수선화 만개 화순군 이서면 한 농가의 텃밭에 수선화가 만개했다. 자존심, 고결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수선화는 요즘 아파트나 일반주택의 관상용 꽃으로 인기가 높다. /연합뉴스

주민들 문화복지 향상 '지역복지협의회' 설립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가 농촌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3일 '화순군농협 지역문화복지협의회'를 설립했다.

화순지역 문화복지협의회는 화순군청 실무자와 농가주부모임 및 고향생각주부모임 군회장, 화순관내 농협 복지담당자로 구성됐다.

이 협의회는 관내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 아동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도배 등) 및 결연을 통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또 건강강좌와 노래교실 등을 여는 등 민관협력으로 지역문화복지향상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종순 지부장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화순군지부가 2년 연속 전국 1위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이에 보답키 위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친절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 삼한지테마파크 또 활기

'주몽'이어 '태왕사신기' 촬영장 활용

나주시 공산면 '삼한지 테마파크'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고구려 건국과 광개토대왕의 대륙정벌을 소재로 한 역사무협 판타지 드라마 '태왕사신기'(제작사 김종학 프로덕션) 의 삼한지 테마파크 촬영은 지난 22·23일 이틀간 이뤄졌다. 〈사진〉

세트장 건립비를 포함해 3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는 주 촬영은 제주도 묘산봉 관광지일대에서 이뤄지고, 나주 '삼한지테마파크'는 보조 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으로 향후 삼한지 테마파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주말과 휴일에 즉석 노래자랑과 풍물공연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유명 영화감독인 임권택, 김기덕 감독이 삼한지 테마파크를 방문해 영화 촬영지로 관심을 표명하는 등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신청 하세요

전남도, 1차 장애인·노인 돌보미 사업 2천여명 채용

전남도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취업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전남도가 26일 공고한 모집계획에 따르면 인원은 총 4천82명으로 4월부터 시행할 1단계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노인 돌보미사업 등에 2천120명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재가 장애인 349명을 채용해 주차구역 단속, 건강도우미, 동료 장애인 상담 등에 투입할 예정이며 노인 돌보미 사업에는 331명을 채용, 독거노인의 가사 간병, 활동보조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아이 돌보미 사업은 40명을 채용해 맞벌이 부부나 경제적 활동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구의 아이 돌보기, 학원 보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도 1천400명을 채용해 1급 장애인의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 사회활동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6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모두 1천96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지역사회 혁신사업에 1천여명을 고용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그동안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실업자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함평 학교면 주부 100명 대상

글로벌 추임새운동 교육

함평군 학교면이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역 혁신과 글로벌 추임새운동을 펴고 있다.

학교면은 지난 23일 주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고일석씨는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추임새 운동에 주부들이 적극 참여해 상대를 헐뜯는 대신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회풍토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했던 강송복(50·죽정리)씨는 "기존의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해 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환행 면장은 "여성이 농촌지역사회에서 변화된 모습과 실천을 보일 때 농촌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부들을 상대로 혁신교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記者 논단

나주에 부는 변화의 바람

정 칠 현

〈사회2부·나주 주재〉

최근 나주지역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화합보다는 반목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이같은 변화는 공동혁신도시 유치이후 지역에 발전 조짐이 보이면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신정훈 시장을 비롯, 나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열정때문이다.

실제로 고민관 국장을 축으로 하는 나주시 건설교통행정은 가시적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송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시청앞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돼 연말이면 나주 도심이 새롭게 변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방산단조성사업, 그리고 남평부도심 확장계획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는 드라마 주몽도 한 몫을 했다. 한편의 드라마가 매년 시세가 위축되고 있는 나주를 전국에 알려 호남의 중심도시, 역사도시로 발판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최근 범 시민적으로 실시된 대청소에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해 민·관이 하나 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과거 관 주도 행사에 마지못해 시민들이 참여하던 양상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나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도시다. 다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수면위로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었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변하고 있는 한 나주의 미래는 밝다.

/chjung@kwangju.co.kr